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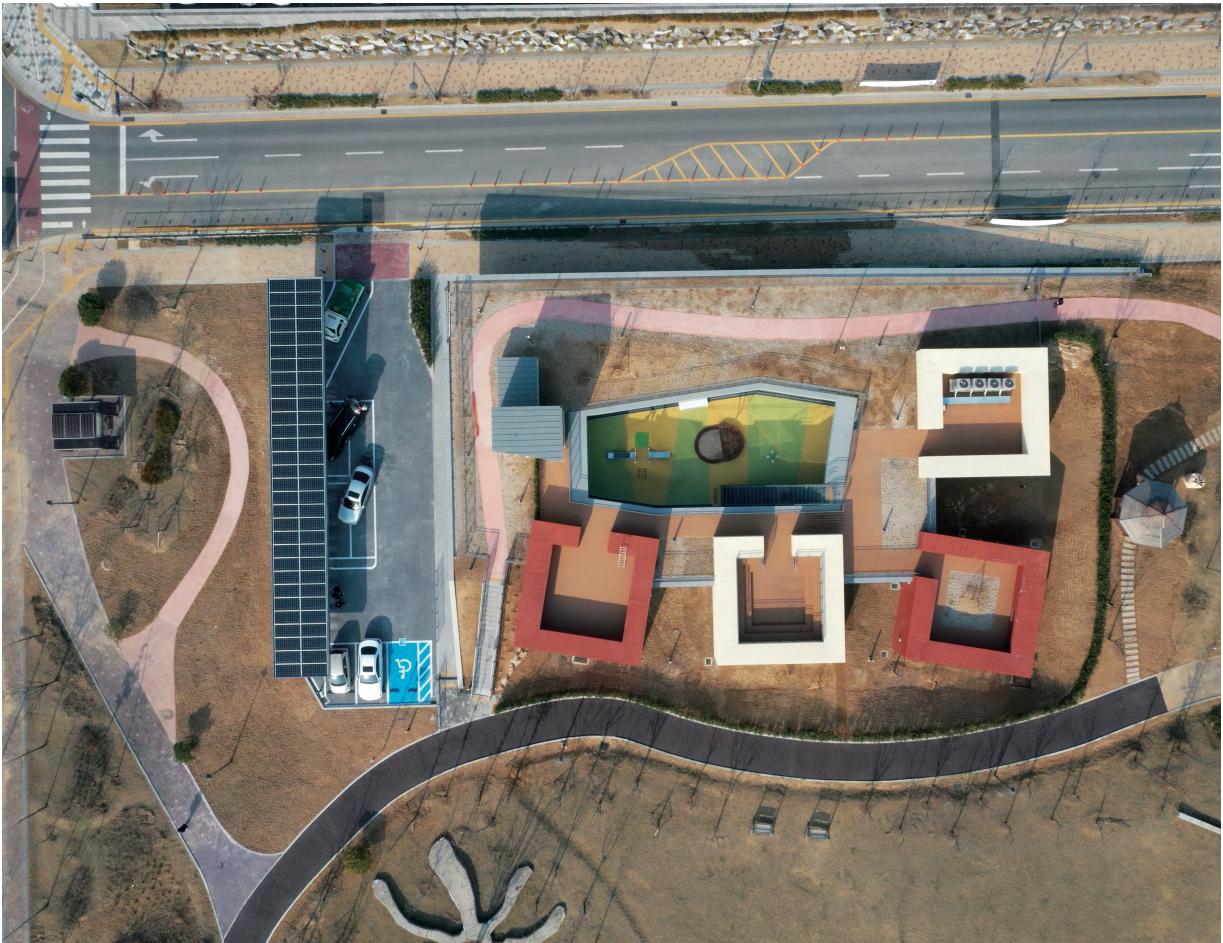
마루뜰어린이집

공원을 품은 어린이집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세종특별시 반곡동 77-91 일원 (행복도시 균린공원 43 모개뜰 균린공원 내 사업부지)
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4,825m ²
건축면적	964,06m ²
연면적	903,60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5,25m
건폐율	3.88%
용적률	3.64%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윤구조
설계	최재원, 오진국, 조경민, 성민창, 최명서
시공	서림엔지니어링(주)
기계·전기설계	성지
설계기간	2019. 10.~2020. 6.
시공기간	2020. 7.~2021. 2.
공사비	29억 원
건축주	국토연구원



공원 산책로에 둘러싸인 어린이집



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한 일체적 경계

마루뜰어린이집은 지속적인 보육 수요 증가로 건립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 내에 위치하는 직장어린이집과는 달리 마루뜰어린이집은 국토연구원과 국책연구단지 인근의 모개뜰근린공원 속에 자리 잡았다.





중점



©플로건축사사무소



상 주출입구
중 어린이집과 연결된 산책로
하 중정과 외부공간을 잇는 계단



상 마을길 같은 내부 동선
하 중정과 내부공간 사이 풀딩도어



좌·상

좌·하

우

책마루

중정을 따라 이어지는 순환동선

중정 놀이공간

공원의 녹지 안에 자리한 마루뜰어린이집에서는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집 상부를 공원과 연결한 탓에 어린이집은
직각 그리드를 벗어나 자연의 곡선을 품었다.
마루뜰어린이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은
건축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풍경을 감상하며 다채로운
자연을 경험한다.

©플로건축사사무소



공원 산책로에서 보이는 어린이집

공원 속에 자리 잡은 직장어린이집

세종시로 이전한 15개 공공기관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중이었으나 지속적인 보육수요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부족의 심화가 예측되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별도로 건립하여 소속 직원과 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녀에게도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하려 하였다. 이미 조성된 연구원 안에는 공간의 여지가 없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토 연구원과 국책연구단지 인근의 모개뜰근린공원의 일부를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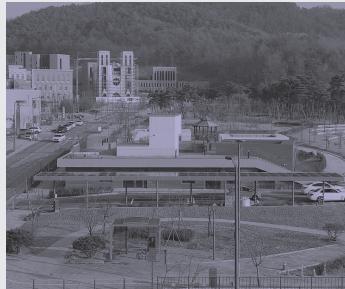
직장 내에 위치하는 직장어린이집과는 달리 마루뜰어린이집은 도시와 공원의 접점에 위치하며, 도시 안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외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고민하게 해준 프로젝트였다. 이미 조성된 공원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전용하는 만큼 공원과의 관계가 프로젝트의 중요한 숙제였으며,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였다.

공원과 어린이집의 입체적 경계

어린이집과 공원이 2차원적인 담으로 경계가 구분되고 서로 등을 맞댄 공간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유아들이 주요 사용자인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을 위해 주변과 어느 정도의 분리가 요구되었다. 공원과 어린이집은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였다. 담으로 이루어진 경계가 아닌 대지의 높이 차이를 활용한 입체적인 경계가 해법으로 떠올랐다.

이에 3m가량 높이 차이가 나는 대지의 낮은 쪽을 어린이집의 1층 레벨로 하고, 중정이 있는 어린이집 위를 공원의 산책로가 지나가도록 하였다. 조성되어 있던 공원의 길은 다시 어린이집의 상부로 입체적으로 연결된다. 공원의 산책자는 기존의 길보다 더 다양한 레벨과 조망을 경험할 수 있다. 산책길 주변으로 조성된 녹지는 공원 녹음의 일부이면서 어린이집과의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낸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깊이 있는 경계는 어린이들이 울타리에 갇혀 있기보다는 안전하게 자연과 공원을 즐기며 주변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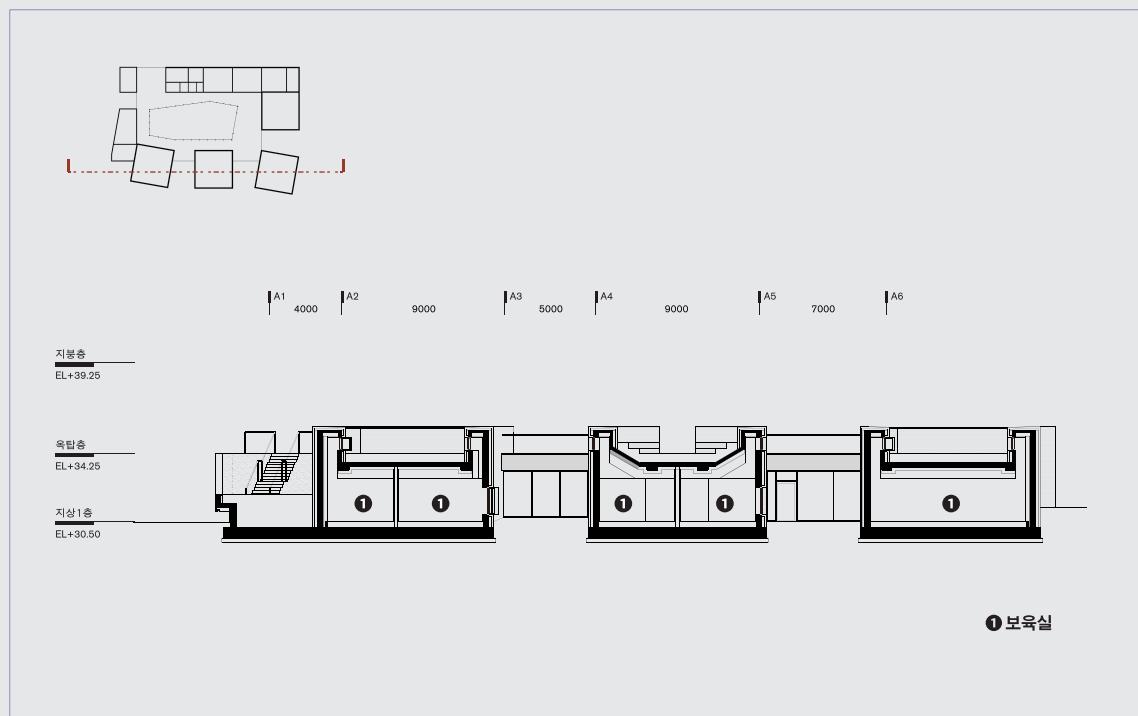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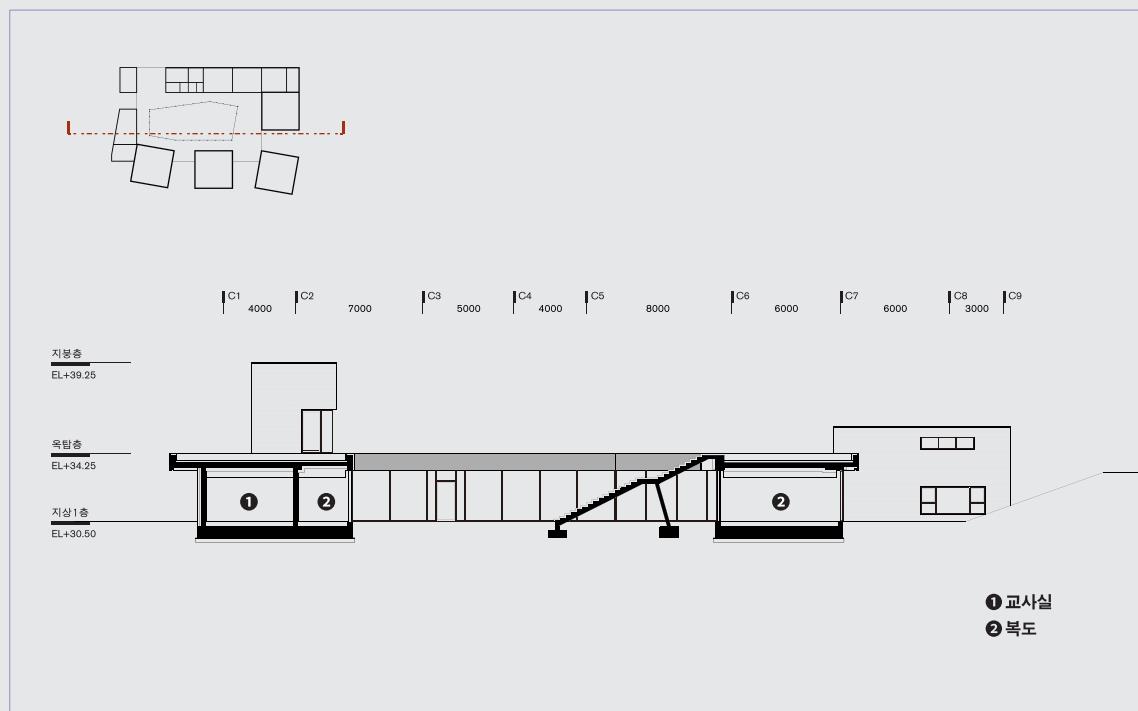
◎ 블로그 건축 시사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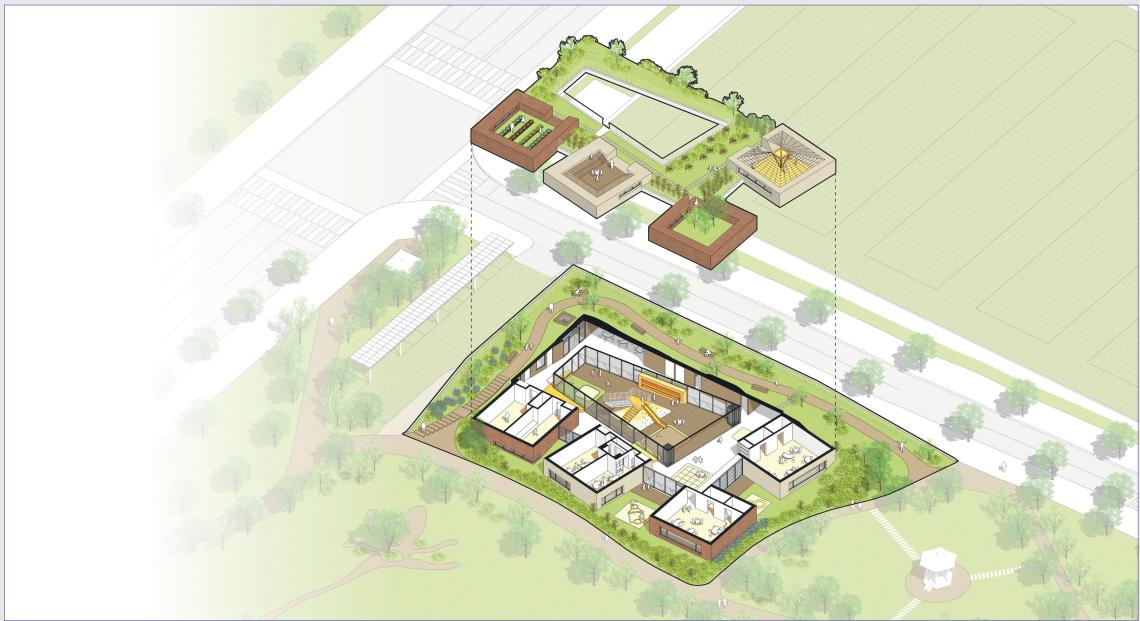
상 대지 레벨 차이를 이용한 입체적 경계
하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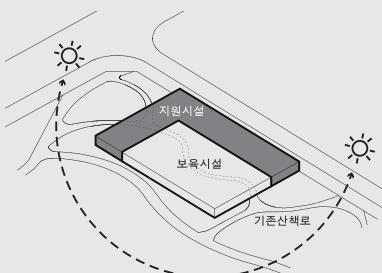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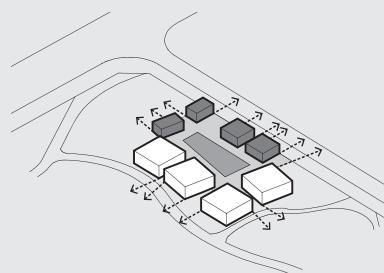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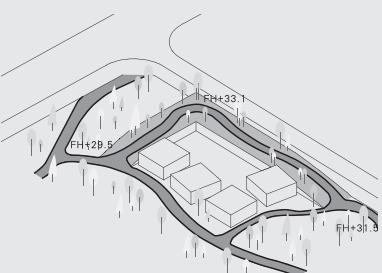
액소노다이어그램

**Step 1 |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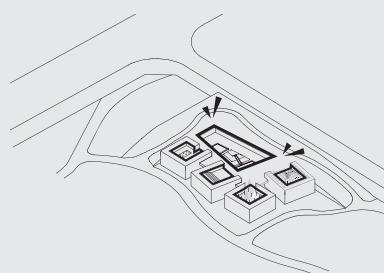
지원시설은 인접도로와 주차장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보육시설은 남동향으로 공원을 바라보도록 배치

**Step 2 | 분절하여 열어주기 & 순환동선**

보육시설은 연령에 맞게 분절,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동선을 계획하고 공원 및 도로로 시각적으로 연결

**Step 3 | 입체적인 산책로**

공원의 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 산책로인 '비람꽃 둘레길'을 계획하여 어린이집으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공원의 흐름을 복원

**Step 4 | 다양한 외부 놀이공간**

중정 및 옥상에 다양한 테마의 놀이 및 체험공간을 계획, 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을 유도

디자인 프로세스

보육실과 서비스 공간

어린이집의 위치는 북서쪽으로 도시를, 남동쪽으로 공원과 면한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을 남동쪽으로 우선 배치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식당 등을 북서쪽으로 위치시켰다. 보육실은 충분한 채광과 공원으로 조망을 주고, 원장실과 교사실은 입구에 위치하여 원아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당은 북서쪽 도로에서 접근이 쉽도록 별도의 서비스 입구를 두어 계획하였다. 입구의 전면 주차장은 등·하원 시간에 특히 혼잡한 어린이집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를 많이 계획하기보다는 희자가 쉽도록 순환동선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아이들을 계획 대지 안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하여 삼거리 근처 도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블로그 건축 시사문수



상 중정과 외부공간을 잇는 계단
하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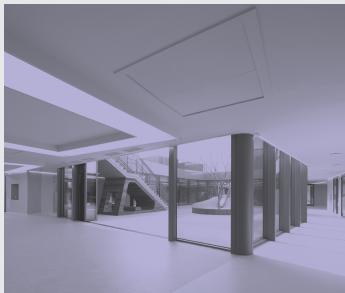
주택처럼 편안한 공간

아이들이 어린이집 어디서든 자연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들을 공원의 녹지 안에 배치하기 위해 각 보육실의 적합한 규모를 상정해야 하였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 보육실을 구분할 경우 6개의 실이 되고 보육실을 남동쪽으로 배치할 때 사이의 공간을 두기 어려웠다. 이에 영아들의 보육실을 2개씩 묶어 전체 4개의 보육실로 구성해 여유 있는 사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구와 가까운 공간에 가장 어린 영아들의 공간을 두고, 유희실에 가까운 곳에 활동성이 좋은 유아들의 보육실을 배치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각각의 보육실을 집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에 따라 익숙한 두 가지 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하고 집들이 직각의 그리드를 벗어나 자연 안에 편안하게 놓이도록 하였다. 같은 크기의 매스로 비슷한 듯하지만 각각의 특색을 지닌 집들이 아이들에게 편안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자리하기를 바랐다.

바라보는 창과 깊이 있는 고측창

보육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생활 공간이다. 주변으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이면서 공원으로의 열린 조망과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보육실에는 크게 두 종류의 창을 설치하였다. 먼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창들을 계획하였다. 높이 1.5m 이내의 바닥까지 내려온 창들을 통해 아이들이 공원으로 시선을 주고 자연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



©플로건축사사무소



상 하 중정과 내부공간 사이 풀딩도어
마을길 같은 내부동선

였다. 다른 하나는 고층창으로 보육실 전반에 자연광을 비출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고층창은 단면을 활용해 깊이를 주어서 창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낮시간 동안 보육실에 전반적으로 따뜻한 빛을 제공한다.

하나의 판과 여러 채의 집

마루뜰어린이집은 도시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공원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 도시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연속된 대지의 판으로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인상을 주도록 하였다. 건물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원 지형의 일부가 변형된 모습이 어린이집으로 보이길 원하였다. 지형을 들어 올린 공원의 모퉁이는 어린이집의 입구가 된다. 반대편 공원 안에서는 어린이집을 바라볼 때 하나의 매스로 이루어진 건물로 보이기보다는 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집들의 집합으로 인식되길 기대하였다. 네 채의 보육실들은 공원 안에 자유롭게 놓이고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인접한 공원 산책길에 대응한다. 집 사이의 초목들은 공원을 연결하고 한편으론 어린이집과 적절한 경계를 만든다.

산책로와 포켓마당

어린이집의 상부에 복원된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산책길에는 벤치와 레벨을 고려한 전망 데크를 설치하고, 계절별 식재를 계획하여 공원의 녹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산책길과 중정 사이의 차폐식재는 어린이집과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분리함과 동시에 공원의 녹음을 건물로 끌어들인다. 보육실의 상부는 네 개의 포켓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정의 놀이터와는 구분되는 작은 공연장이나 놀이공간·정원·텃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실 실내에 고층창들을 위한 상부로 돌출된 단면이 옥상에서는 깊이 있는 공간으로, 보육실 크기의 야외학습이 가능한 포켓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들은 아이들의 야외활동에 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오픈하여 외부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정과 순환동선

어린이집의 중심에는 중정이 위치한다. 중정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두었다. 다만 별도의 놀이기구를 많

이 두기보다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한 미끄럼틀과 암벽등반, 나무그늘이 있는 쉼터 및 모래놀이공간을 배치하였다. 중정은 깊은 공간이지만 실들 사이사이를 통해 공원으로 시선이 열리고, 중정부터 내부 복도와 사이공간으로 연속된 바닥패턴은 이를 강조하도록 하였다. 내부 놀이공간과 중정 사이에는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활동에 따라内外부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내부공간은 중정을 따라 순환동선을 계획하였다. 순환동선은 일정한 쪽의 복도가 아니라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하고, 사이사이 포켓공간도 있는 마을길 같은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이 보육실을 나왔을 때 자유롭게 활동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반외부 같은 공간으로 말이다. 바깥쪽으로는 공원으로, 안쪽으로는 중정의 놀이공간으로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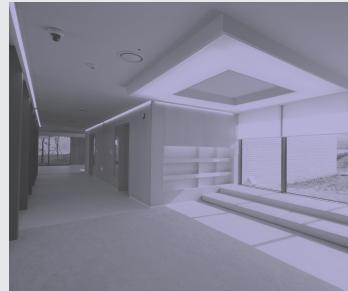
사용자 협의와 디자인감리

설계를 진행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관련 기관의 구성원이 함께 설계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예비원아들의 부모인 TF 구성원들은 대부분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공모로 당선된 계획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생각지 못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실들의 위치나 크기 등을 조정해 나갔다. 설계 납품 후 공사 때에도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감리를 수행하였고, 감독관·감리자·시공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 여건에 맞추어 디테일들을 조정해 나갔다. 예상치 못한 현장의 여러 상황은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기간 중 설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어린이집을 품은 공원, 공원을 품은 어린이집

건축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건축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물음을 갖기 마련이고, 마루뜰어린이집은 이와 관련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디까지가 인공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것인지, 공원은 마냥 자연적인 것인지, 우리 주변의 자연은 대부분 인공적인 것은 아닌지, 건축은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등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과 건축’ 또는 ‘공원과 도시’와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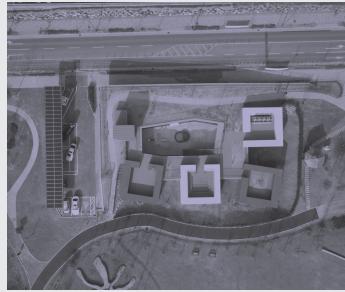
◎ 풀마루건축사사무소



상 풀마루
하 중정 놀이공간



④ 플로건축시사무소



⑤ 국토연구원

상 어린이집과 연결된 산책로
하 공원 산책로에 둘러싸인 어린이집

건축은 자연의 일부가 되고 프로그램을 담은 공원은 도시와 만난다. 어린이집의 사용자는 자연을 더 가까이 느끼고, 공원의 이용자는 입체적인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공모심사 때에도 실제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건축가가 제안한 이런 입체적 관계를 운영상·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의 필지로 명확히 구분해 버린다면 옥상의 산책길은 쓸모없는 공간이 되고 공원은 줄어들고 말 것이다. 현재 옥상의 포켓공간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았지만 산책길은 공원 이용자를 개방해 활용하고 있다. 운영자의 배려로 어린이집 상부의 공원은 자연스럽게 공원 산책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관계가 긍정적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의 주인공은 그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칫 설계자의 과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다. 보육실과 중정의 놀이공간은 공원의 산책로와 시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녹지는 공원과 어린이집의 거리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듯이 새로 식재된 나무들도 시간을 두고 성장해 더 풍성해지면서 공원과 연속된 경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원과 어린이집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공원 이용자도 산책로를 편안하게 활용하고, 아이들도 자연의 풍요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